

2024. 5. 3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3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

치수안전과장

김지환

02-2133-386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매수: 3쪽

치수총괄팀장

류춘광

02-2133-3862

서울시,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상설화로 예측 어려운 기후재난 신속 대처

- 서울시(소방재난본부 포함), 서울경찰청, 수도방위사령부 3개 기관으로 협의체 구성
- 5.1 첫 회의...기관별 풍수해 대책 사전 공유, 공동협력 기반 구축 및 소통 강화
- 태풍, 집중호우 시 예방·대응·복구 등 기관별 대처 사항 공유로 효과적 공동대응

서울시는 재난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소통,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“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”를 구성한다고 밝혔다.

-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강우 등 지자체 단독으로 대응키 어려운 대형재난, 예측이 어려운 재난 발생이 빈번해 짐에 따라 관계기관 공동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.
- 서울시, 서울경찰청, 수도방위사령부 3개 기관에서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*과 실무진으로 구성된다.

* 서울시 : 치수안전과, 재난대응과(소방재난본부), 도로관리과, 도로시설과, 산지방재과
 서울경찰청 : 위기관리경호과 / 수도방위사령부 : 군수처

협의체는 5월 1일(수) 첫 회의를 갖고, 운영 목표인 풍수해 재난대응에 대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다.

- 서울시는 ▲ 단체채팅방·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▲ 침수 예·경보 발령시 경찰·소방 공동대응 ▲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▲ 저지대 도로 및 지하철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▲ 산사태 예·경보 발령시 주민 사전대피 등 각 기관의 공조와 협력을 요청하였다.
- 서울경찰청은 풍수해 대비 실효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▲ 초기 위험상황 예측·발견 시 구체적 지원 요청 ▲ 위험도 등 구분에 따른 취약지역 상시 현행화 ▲ 가용인력·장비 적극 지원 등 각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,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고, 앞으로 기관 합동의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.
- 앞으로 서울시는 협의체 참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업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,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따른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기관별 대처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-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“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복잡·다양해져 재난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제, 대피, 구조·구급 등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”라며 “우리 시에서는 군·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협의체 회의 사진('24. 5. 1.)

